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최영용(330-8749)입니다.

한지붕 세대 공감 ‘홈셰어링’ 사업은 주거 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해드리는 주거공유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은 주변 시세의 50% 정도에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대학생은 어르신에게 소정의 임차료(대략 매월 20~25만원, 공공요금 포함)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학생이 간단한 말벗도 되어 주고, 전자기기 작동법 등도 알려 주며, 무엇보다 위급한 상황에서 어르신의 안전을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홈셰어링은 신청하더라도 100% 연결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선 담당자가 방문하여 주거 환경이 쾌적한지, 어르신께서 대학생과 잘 어울려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은지 등을 찬찬히 판단한 후 프로그램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진행이 결정되더라도 학생과 매칭하는 데 시일이 걸리며, 또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희망 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연결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배부해 드린 홍보물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며 상담할 때 ①최소 18평 이상 ②자가 주택(대학생들은 거주 환경이 깨끗한 집 선호), ③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이나 노인 부부 중 ④성품이 온화하시고 ⑤주거 공유 마인드를 갖추신 분들께 간단히 안내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내 시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상황 1>

”구청 담당자가 빠른 시일 내에 안내 전화를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의사를 다시 확인한 뒤 그분 성함과 연락처를 담당자(최영용 : 330-8749, *****)에게 전달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상황 2>

“찬찬히 생각해 보신 후 나중에라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제게 전화를 주세요. 제가 구청 담당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며

어르신과 대학생의 주거 공유를 실현하는 좋은 사업이므로

바쁘시겠지만 꼭 필요하신 분을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